

“쌀독에서 인심 난다” 저출생 극복 성금 ‘온누리’

관련기사 2면

나날수록 더 넉넉해지는 지는 것이 ‘세상 인심’이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사회가 돌봐야 할 이웃은 너무나 많다.

나눔을 통한 이웃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이 온누리에 퍼진다. 일선 지자체마다 고향사랑 기부행렬이 곳곳을 채운다.

이 뿐 아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선뜻 내놓는다. 빠듯한 살림살이 허리띠 바작 조여매지만 그래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실감나게 한다. 그래도 세상 인심은 참 따뜻하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를 펼쳤으면 한다.



▲ 김경래 대표, 영덕에 고향사랑
◀ 양금희경제부지사저출생과의전쟁자금기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더불어사는 공존의 세상... 당신이있어 참 행복합니다

대구·경북 곳곳서 나눔문화 확산 저출생극복 모금기부운동 '들불' 고향사랑기부금 운동도 활화산...

대구 경북 곳곳에서 나눔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저출생극복을 모금운동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동도 활화산이다. 저출생은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전장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다. 아이울음 소리가 사라진지 오래다. 때문에 경북도내 일선 지자체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양곡회 경제부지사, 5백만원 쾌척

양곡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5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개인 자격으로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양 부지사는 "지금 도정 화두는 저출생 극복과 대구 경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저출생 문제는 지역과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경상북도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2명의 자녀를 출가시키고 경제부지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질 것에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그런 의미에서 첫 월급을 정말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기부하게 됐다"고 성금 기부의 취지를 밝혔다.

전업주부로 10여 년의 경력 단절 경험, 교사,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이력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일 자로 취임한 양곡회 경제부지사는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김천에 있는 중견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경영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부지사 첫 임정을 시작했다.

도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온 국민의 공감대 조성 및 동참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원이상 기부 운동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모금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모금을 시작한 이래 개인, 각급 단체, 기업인, 국외교포 등이 성금 모금에 동참해 6월 현재 32억여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우방센터 어린이집 성금 기탁

예천군 우방센터 어린이집은 25일 호명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경북저출생극복성금 48만7000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어린이집 장남 행사에서 원아들이 물품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금이다.

아이들과 함께 기탁식에 참석한 조경숙 원장은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돼 아이들의 동생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윅기 호명읍장은 "어린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노력해가자"고 말했다.

■영덕 고향사랑 기부 있다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케이씨전자(주)의 박수한 대표가 지난 25일 김광열 영덕군수를 만나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박 대표는 영덕군 축산면 출신으로, 축산중학교 동창들과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원이 함께 기탁식에 자리했다.

같은날 부산 사상구에서 부동산중개업 및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선라이즈디앤씨(주)의 김경례 대표도 영덕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기탁식에는 축산면 출신인 김경례 대표의 축산중학교 동창들과 함께 자리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축산면 출신의 자랑스러운 동창분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깊은 뜻과 정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신 기부금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데 소중한 기여"라고 답례했다.

■청도고향사랑 기부 녀석

취진경건설 강호수 대표가 지난 24일 청도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강 대표는 청도군 이서중·고등학교 1회 졸업생 출신으로 청와대 대통령경호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현재, 건축회사인 취진경건설(경기 광주시 소재)을 운영하며 경영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내고향 청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출향인들의 더 많은 관심으로 지역 발전의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태어난 고향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 연을 맺은 '제2의 고향'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품(감말랭이, 반건시, 장류 등)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일석산조의 기부제도이다.

김호수 청도군수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가까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해 주어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청도군의 미래 인재 발굴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가수 문정옥, 장학금 기탁

가수 문정옥 씨가 25일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를 방문,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제2회 영양산나물가요제에서 대상 수상금이다. 대구 출신의 가수 문정옥 씨는 제2회 영양산나물가요제에서 대상으로 입상하는 등 여러 가요제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가수 문정옥 씨는 "올해 영양산나물가요제 참여 차 영양군을 방문했을 당시 군민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인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산나물가요제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축제의 흥을 돋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급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해 주신 문정옥 가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학생들의 꿈을 향한 도전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해 다양한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장학금 기탁

제36회 경주시 문화상 사회·체육 부문 수상자인 경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업무지원사업단 이용호씨는 지난 19일 경주시청을 방문,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300만 원을 (재)경주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이씨는 2006년부터 문화유산 해설사로 활동했으며, 국립경주 어린이박물관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등 시니어 역량강화에 기여했다.

수해민 돕기 모금활동, 경주역 철도 안전지킴이 활동, 경주가정폭력상담소 자원봉사, 천우자애원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 등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봉사를 하고 있다.

이씨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바람직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후원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열심히 노력해 미래 우리 지역사회를 이끄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재)경주시장학회 이사장(경주시장)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선물을 베풀어준 이용호님께 감사드리며, 기탁하신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인재들을 위해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달성군 장학금 수여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은 26일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2024 (재)달성교육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 장학생과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

냈으며, 장학증서 수여와 함께 내빈들의 축사, 장학생 대표의 소감발표가 있었다.

장학생 선발인원은 총 261명(예·체·기능 특기생 55명, 대학생 157명, 특별장학생 49명)이며, 장학금 지급액은 총 5억 2000여만 원이다.

(재)달성교육재단은 올해 장학생 선발을 위해 지난 3월 5~4월 5일까지 장학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장학금 지원 신청자 360명 중 261명을 선발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우리지역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달성을 빛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송군, 따뜻한 나눔 문화

정송군 파천면 중평리 출신 출향민 '진갈산맛국수' 대표 이태정씨가 고향인 정송군 파천면에 국수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

이씨는 출향민이지만 고향에 지속적으로 국수를 기부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씨는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고향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향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경희 정송군수는 "이태정씨와 같은 출향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정송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며 "고향을 위한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안동시, 나눔봉사 활황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청년회는 지난 24일 송하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빵 나눔 봉사를 실천했다.

'사랑의 빵 나눔 봉사'는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청년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봉사활동에는 청년회장을 포함한 10여 명의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빵 반죽부터 굽기 및 포장까지 직접 구슬땀을 흘려 만들었다.

정성껏 구운 카스테라 126개와 우유 72개를 송하동 관내 경로당 어르신 및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을 찾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덕담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규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청년회장은 "사랑과 정성이 우리 이웃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웃 모두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식 송하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펼친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청년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 간단한 간식조차 누리기 힘든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청년회는 사랑의 빵 나눔 봉사뿐만 아니라 헌혈 나눔 캠페인, 사랑의 라면 나눔 봉사,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달서구, 여름철 온기나눔

달서구가 지난 22일 토요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 190여명이 참여해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400세대에 전달할 '희망드림 꾸러미 만들기' 봉사활동을 했다.

'희망드림 꾸러미 만들기' 봉사활동은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2019년 처음 시작, 올해로 6번째를 맞는 봉사활동이다.

행사는 가족, 청소년,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여름나기 생활품 400상자를 직접 만들어 지역의 홀몸어르신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위해 마련됐다.

가족봉사자 100여명이 참여, 가족 구성원의 잠재력 및 유대감 향상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 제공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봉사활동은 △자원봉사 기초교육 △계피포기 모가별 레터치제 만들기 △여름나기 생활품(곡수, 곰탕, 부채 등) 꾸러미 만들기 순서로 진행됐다.

완성된 희망드림 꾸러미는 7월 예정된 '희망+ 여름나눔 마당'에서 담근 각자들과 함께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400세대에 전달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무더운 날씨와 지친 일상에 봉사자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희망드림 꾸러미를 받고 건강하고 여름 나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19만 자원봉사자들이 선두로 하여 열정과 따뜻한 마음을 모아 모두가 행복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구정에 민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재)달성교육재단 장학금 수여식



(취진경건설 강호수 대표 청도군에 고향사랑 기부



가수 문정옥 장학금 기탁



경주시니어클럽



달서구 희망드림 꾸러미 만들기봉사활동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청년회



박수한 대표, 영덕에 고향사랑 기부



예천군 어린이집 경북 저출생극복 성금 기부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 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3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com.net

발행인 김 영 속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6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 “저출생 정책 주도권 권한 지방에 넘겨라”

저출생 극복 우수 지자체 대표로 대한민국 인구 포럼 in 국회 참석
저출생과 전쟁, 국가 개조가 필요
정부 냉정히 예산 평가 구조 조정
저출생 핵심 분야 전격 투입 강조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강경하게 한 말이다. 이 지사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 포럼 in 국회'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넘기고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 대개조 사업인 행정통합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국회의원,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들이 참석했다.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68명, 2025년 0.65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치들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이동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에 기반하고 있어, 실제로는 훨씬 빠른 인구 감소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 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대비 34.75% 감소, 국내총생산(GDP)이 28.3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저출생과 전쟁 선포
기조 발제,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발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입법부의 책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주기 실행전략 추진 등 저출생 극복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저출생으로 죽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국난 때마다 경복이 나서 해결한 역사적 소명으로 저출생과 전쟁 선포에서 꼭 이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과 행정통합을 내놨다. 이 지사는 경북도가 구조 조정에 만든 1100억원의 전쟁 자금을 소개했다. 그는 국가도 냉정하게 기존 예산을 평가해 예산 재분배 등 저출생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실제 현장에 맞는 정책 디자인은 지방정부가 하고 국가는 지역마다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해

야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난제의 주원인이 수도권 집중인 만큼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500만명 규모로 행정통합하고 국방, 외교, 통일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모든 권한을 이양해 연방제 수준의 완전한 자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은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 대개조 사업으로 균형 발전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국회에도 저출생 극복은 입법부의 책무라며 저출생 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신속히 만들어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인류사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고 죽어가는 나라 살리는 저출생과 전쟁에서 이겨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이 지사는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윤 대통령 주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최우선 과제로 지방이 직접 정책을 주도할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이 지사는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복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정주민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나라가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획일적인 저출생 대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지역 특성과 개별 현장에 맞게 지방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마련 등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철우 지사의 말씀이 정확하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며, 지방의 현실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발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국회 참석자 명단 2024.6.26(수)

1	(주 회) 김진오 CBS 사장
2	(장 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3	(장 부) 우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4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5	(국회의원)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6	(국회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7	(국회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8	(국회의원) 민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9	(국회의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10	(국회의원) 현학일 개혁신당 원내대표
11	(국회의원) 황윤석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12	(대 별) 김상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13	(대 별) 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	(대 별) 정준영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5	(대 별) 유혜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16	(대 별) 이상원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17	(지자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그 외 국회의원 다수 참석	

표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 정책을 평가·분석하고 재구조화해,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아동수당 지급 기한을 17세까지 늘리면서 급여액도 둘째 이상 셋째 이상에 각각 15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인구특임장관 도입, 인구전담부처 신설, 복지부장관의 인구부총리 격상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김성용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언한 술로건입니다.



대한노인회 군위군 부계면분회, 군부대 이전 군위 유치 적극 지지

부계면은 “지난 25일(화) 대한노인회 부계면분회(분회장 흥연송)에서 대구시 군부대 이전 군위 유치 적극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부계면 분회장 흥연송의 150여명

의 부계면 삼국유사 청춘대학생들은 수업에 앞서 군위군 정책추진단의 군부대 이전 사업 설명을 듣고 군부대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함찬구호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회 대구시 군부대의 새

보급지라는 군위군으로”를 제창했다.

흥연송 대한노인회 부계면분회장은 “오늘 군부대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난 뒤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군위로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적극적으로 유치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박재성 기자

대구시-경북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2027년까지 미래모빌리티 분야 특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협력을 통한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기반 마련

대구시는 경북대학교와 함께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대구시는 미래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신산업(ABB, 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경북대와 미래모빌리티 분야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대는 2022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6년간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경북대학교는 지역 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업이 요구하는 특화과정(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임베디드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수요 맞춤형 인재를 발굴한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산학프로젝트 수행뿐만 아니라 국제 대학교류 프로그램 참가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2023년에는 총 86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20팀(93명)이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또한, 기업전문가 초청세미나, 융합사업가 양성 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개최했다.

올해는 특히 단기 교육과정보다 중·장기 교육과정 운영에 비중을 둘 예정이고, 기업 사전 초청 포럼을 개최해 기업 설명회, 학생 진로 상담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 교육부 글로벌대학 30사업에 예비 지정된 경북대학교는 글로벌로 도약하는 연구 중심 종합대학을 목표로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 경제 성장과 함께하는 고급인재 양성 및 혁신 기술 개발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종찬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에 경북대와 함께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힘을 보태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미래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미래혁신 인재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여름철 무더위 날릴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국가산단2호근린공원에 7월2일 개장

달성군은 여름철 무더위를 날려줄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위해 구지면 소재 국가산단2호근린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을 오는 7월 2일 개장한다고 전했다.

물놀이장은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를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물놀이장 안전 및 수질관리를 위해 군은 관리인 및 안전요원 3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고, 청결한 수질 유지를 위하여 매일 상수도를 이용한 직수로 담수할 계획이다.

또, 월 2회 수질검사와 수시로 여과·자외선 소독을 실시하고, 개장 전·후로 매일 청소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이번에 운영하는 568㎡ 규모의 물놀이장에는 물놀이형 조형놀이대 1대와 버켓형·분

사형 물놀이시설 4대가 설치되어 있어 물놀이장을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시원하고 재미있는 여름철 놀이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어린이들이 더운 여름철 무더위를 극복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과 부모모두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중구청, 문화가 있는 날 6월 매마토 문화공연 개최

In to the 대프리카 마지막 토요일 문화공연



중구청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오는 29일 오후 5시 30분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서 매마토 문화공연을 개최한다.

매마토 문화공연은 중구청이 주최하고 중구문화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이번공연은 'In to the 대프리카'라는 타이틀로 기획됐다.

이날 공연은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뜨거운 대구의 여름을 맞

이해 중남미의 격정적인 큐반 리듬을 바탕으로 라틴음악 밴드인 '큐바니즘'과 DJ가 함께하는 EDM&힙합공연으로 진행된다.

아프로큐반을 연주하는 국내 유일 여성 7인조 라틴 밴드인 '큐바니즘'은 키보드, 기타, 베이스, 피아노, 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통해 격정적이고 파워풀한 라틴음악과 한국어 가사에 서정적인 멜로디 라인을 입힌 한국적인 라틴음악으로 인상적인 라이브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로빈, 체리, JB 3명의 DJ와 함께하는 EDM&힙합 공연으로 음악을 통해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연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중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김광석길(대프리카)을 찾는 모두가 음악공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위를 떨쳐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공연으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마토 문화공연은 김광석길을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다음 공연은 9월 28일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에서 퓨전 마당극으로 찾아올 예정이다. 조미경 기자

북구보건소, 2024년 동 방역소독사업 발대식

동별 취약지 집중 방역으로 선제적 방역소독 활동 시작



북구보건소는 2024년 동 방역소독사업 발대식을 26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하절기 동 방역에 돌입한다.

발대식은 23개 동 방역담당 공무원 및 방역소독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을 위한 결의 다짐 선서, 방역약품 취급요령 및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실무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북구보건소는 해충으로부터 감염병 발생을 막고, 주민 불편 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중 방역에 힘쓰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방역취약지역(하수구, 물웅덩

이 등)에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4월에는 4개 방역반을 편성하여 잔류분무소독과 병행하였으며, 6월부터는 야간에 연무소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 방역소독사업은 7-8월 두 달간 실시되며, 방역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불결지, 모기 서식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은 보건소와 일제 합동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영숙 보건소장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모기 등의 해충이 주민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하절기 집중 방역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수성구, '뚜비와 함께하는 지방세 홍보 영상' 제작

수성구는 수성구 캐릭터 뚜비와 함께하는 지방세 홍보 영상을 제작해 송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홍보 영상은 짧은 시간에 간결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각 효과와 음악, 텍스트 등을 활용해 표현력을 높였다.

기존 홍보방식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연기하고 제작한 이 영상은 수성구 공식 유튜브 채널 '수성TV At Suseong'에서 오는 27일부터 시청할 수 있다.

뚜비는 과거 신천변 마을 '중동'을 지키던 돌두꺼비 이야기와 생태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망월지의 두꺼비를 모티브로 삼아 만든 캐릭터로

수성구의 지역 정체성을 담고 있다.

수성구는 사랑스럽고 친근한 매력을 가진 뚜비를 통해 세무에 대한 주민의 거부감을 줄이는 한편, 지방세 홍보 효과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동구청, '2024년 제5회 동구(洞區) 복지클래스' 성료



동구청은 26일, 동구지역자활센터 강당에서 '2024년 제5회 동구(洞區) 복지클래스'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업은 지난 3일부터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복지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과정(110명)과 심화과정(50명)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광공군과 금호랑과 함께 고품질 탈출! △후견인 제도 △보건의료의 이해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PIE이론으로 본 사회복지 이해와 지역사회복지의 실제 등 다양하게 구성

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강사로 나서고, 관내 사회복지시설도 견학하는 등 프로그램의 질이 한층 높아졌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한 달 동안 총 5회의 교육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역량을 쌓은 수료생들이 앞으로 따뜻한 공동체 복지 동구를 만드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2024년 (재)달성교육재단 장학금 수여

지역 초·중·고·대학생 261명 장학금 5억 2천여만 원 지급

재단법인 달성교육재단은 26일 달성군청 민소통관에서 '2024년 (재)달성교육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서도원 달성군의회 의장, 장학생과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장학증서 수여와 함께 내빈들의 축사, 장학생 대표의 소감발표

가 있었다. 올해 장학생 선발인원은 총 261명(예·체·기능특기생 55명, 대학생 157명, 특별장학생 49명)이며, 장학금 지급액은 총 5억2천여만 원이다.

(재)달성교육재단은 올해 장학생 선발을 위해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장학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장학금 지원 신청자 360명 중 261명을 선발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우리지역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 경기 화성 공장화재 피해 복구비 1억 원 지원

대구시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공장화재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성금 1억 원을 경기도에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화성 공장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근로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대구시의 지원이 화재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건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김종순 건천읍장과 건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 건천시장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반려식물을 나눠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계몽운동을 했다.

계몽운동은 최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절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추진됐다. 반려식물을 건네받은 한 지역 주민은 “화분을 예쁘게 키우면서 혹시 내 주위에도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계속 관심을 두게 될 것 같다”며 “오늘부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送人은 뒷모습이 아름답고 來人은 힘차게 첫발 내딛는다

<송인>

가장 아름다웠던 뒷모습
경주시청 공직자 퇴임식
시정발전 한평생 공헌...

경주시는 26일 울 상반기 공무원 퇴임식을 가졌다.

알천홀에서 열린 퇴임식은 이규익 시민행정국장을 비롯해 공로연수 19명, 명예퇴직자 5명, 정년퇴직자 3명 등 퇴직자 27명이 참석했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철우 시의장, 시의원, 가족, 친지, 동료 공무원들도 참석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을 격려했다.

퇴임식은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합창단 공연, 퇴직자 가족 영상메시지 상영, 공로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퇴직자 27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고 공직 내부에선 직권 간 화합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무엇보다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지식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온 공무원으로 평가받는다.

이규익 시민행정국장은 “오랜 기간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마친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공직생활을 큰 과오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을 준 동료, 선배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비록 일반인으로 돌아가지만 항상 시정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정 발전을 위해 수십년간 열정을 바쳐온 퇴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왔던 못다 이룬 일들을 많았으리라 생각하고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새롭게 공부하고 도전하셔서 퇴직 후 멋진 제2의 인생을 펼쳐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내인>



경주시는 26일 울 상반기 공무원 퇴임식을 가졌다. 26일 알천홀에서 열린 퇴임식은 공로연수 19명, 명예퇴직자 5명, 정년퇴직자 3명 등 퇴직자 27명이 참석했다. 경주시청을 떠나는 퇴직자들이 마지막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베트남 닌빈성 ‘도안 민 후안’ 당서기 경주 방문

베트남 당서기, 문화유산 정비
활용 현황 벤치마킹 경주 찾아

경주시는 베트남 닌빈성 도안 민 후안(Doan Minh Huan) 닌빈성 당서기를 비롯한 대표단이 경주를 방문했다.

닌빈성은 ‘육지의 하롱베이’라고 불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짚안 경관 단지’가 소재한 곳으로 베트남을 대표하는 자연관광 특구다.

‘짚안 경관 단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은 닌빈성 대표단은 문화유산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주를 찾았다.

경주시와 베트남 닌빈성은 이같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관광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안 민 후안 닌빈성 당서기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수 있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주의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



경주시는 26일 청사 내 대외협력실에서 베트남 닌빈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개최를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주를 전 세계인들에게 소개하겠다”며 “철저한 준비로 역대 최고의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베트남 닌빈성 대표단은 주낙영 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금관총·신라고분정보센터를 방문해 경주시의 문화유산 관리 방안 등을 체험했다.

모집대상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등록업체)로서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면 가능하다.

모집분야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공산품이다. 시는 8월 중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 모집

경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들에게 다양하고 특색 있는 기념품 제공을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로 모집한다.

경주 양북·안강시장 현대화 사업 완료...

안강시장 1억 아케이드 보수
양북시장 1억5천만 시설 설치

경주시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2억 5000만원을 들여 안강시장 아케이드 보수와 양북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안강시장 아케이드는 2009년 조성 이후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고객들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로 기능을 해 왔지만 노후되고 비가 새는 등 전면 보수가 불가피해졌다.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케이드 보수를 비롯해 물받이 청소 작업을 함께 했다.

앞서 안강시장은 비둘기호 인해 불편을 겪어 지나는 비둘기 방조망 설치 공사를 통해 민원을 해결했다.

양북시장은 2020년 비가림시설 공사 후 일부 미설치 구간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난전 상부 비가림 설치 공사를 했다.

시장 이용객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시장 상인들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혼 경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이상기후 대비 경제산업시설 안전점검

농공단지 35곳, 전통시장 19곳
태양광 발전설비 333곳 등 확인

경주시가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경제산업시설 분야 집중 안전점검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산업(농공)단지 35곳 △전통시장 19곳 △민속공예촌 △태양광 발전설비 333곳 △e-모빌리티 연구단지 3곳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공사 현장 등에 주안점을 두고 여름철 이상 기후 대응에 나선다.

산업(농공)단지는 2개 점검만으로 나눠 공공시설물인 축대, 보강토 옹벽, 절개지 및 산사

태 위험지역에 대한 이상 징후를 확인한다. 이상 발견 시 신속한 보강조치 또는 응급복구 이어간다.

전통시장은 민간 전문 업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전기, 소방, 가스, 시설 전반에 대해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오는 8월 공설시장 11곳, 총 점포 678호에 대해 전기설비 일제점검을 한다.

민속공예촌은 지난해 재난복구사업 현장 사방 옹벽과 배수로를 중점 검사한다.

산지 등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지대·모듈 파손, 추가 하중 적재, 배수로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e-모빌리티 연구단지와 문무대왕과학연구

소는 사면붕괴, 유실 및 침수 위험 요소 등을 점검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한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인근 대본리 102세대에 대해서는 주민대피소를 지정해 비상시 알림 및 호송지원, 상황반 운영 가동에 대한 안전대책을 재검토한다.

임동주 경제산업국장은 “이상기후 위기에서 재난대비 사전 안전점검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일제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비가 필요한 곳은 신속히 조치하고 장마 기간 중에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장비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Advertisement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 a sun, rainbow, and bicycle illustration. Text: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새로운 농협이 언제나 당신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NH 농협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영양군 청기면 주민 숙원 8년만에 풀었다...

예산~청기간 도로확포장공사 개통식 교통 오지 영양군 불명예 벗어난 초석

예산~청기간 도로확포장공사 개통식이 26일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일대에서 열렸다. 예산~청기간 도로의 안동시 예산면 인계리와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를 연결하는 길이 9.03km, 폭 8.5m의 지방도 920호선의 일부 구간이다.

행사에는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 부의장 등 군의원들과 안동시 관용대 도시건설국장, 안동시의회 관기 의장, 김경도 부의장, 경북도 배운수 건설도시국장, 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지방도 개선을 위해 총 490억원을 투입, 2016년부터 2024년 6월까지 8여 년 동안 공사를 추진했다. 도로 개통으로 영양군과 안동시의 접근성이 개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사업이 완공되면 영양군과 안동시의 향후 접근성이 개선, 두 지자체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급일 예산~청기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완공은 교통 오지라는 영양군의 불명예를 벗어나는 초석으로, 영양군민의 기대에 부응, 대한민국 교통의 허브가 되도록 SOC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윤환 기자



제27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울진군의회는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7차 본회의에서 군의 주요 사업장 방문, 확인된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운영 성과 등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당부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임승필 의장은 폐회사에서 "새로 구성된 제9대 후반기 의회에서 또 가슴에 새겼던 초심을 잊지 않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송 중앙로사거리 단속

청송군은 청송읍에 위치한 군청사거리에서 1차로형 회전교차로가 설치됨에 따라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한다.

청송읍 군청사거리는 주변 불법주정차로 교통 혼잡과 대형차량의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규정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단속 CCTV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단속될 수 있다.

단속될 경우 과태료 (승용차 4만원, 화물차 및 승합차 5만원)가 부과되는데다.



금천중, '사이버폭력 예방캠페인'

금천중학교는 아침 등굣길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예방 캠페인'을 했다.

금천중은 지난 17~21일을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주간으로 지정,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을 시작으로 반별 감정카드 만들기, 선물 달기, 사이버폭력 예방 퀴즈 등 다양한 행사를 했다.

캠페인은 하이파이브, 책임규약 암송, 사이버 문제 상황 해답 찾기 등 학생들에게 다섯 가지 미션을 부여하고 이를 해결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참여를 이끌었다.



청송군, 상담자원 봉사자 발굴·양성

청송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담 아카데미 - 그림책심리지도사 2급 자격증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상담 아카데미는 상담에 관심 있는 군민에게 상담 교육을 제공, 상담자원 봉사자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12~6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3시간씩 총 10회기로 그림책심리지도사 2급 자격증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지역민 34명이 심리학 이론과 그림책을 활용, 사람들의 심리·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치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그림책심리지도사로서의 역할을 배웠다.

출석률 80% 이상 달성한 28명이 시험 응시 후 자격증을 취득했다.

과정 수료자는 향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앞으로 청송군의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그림책심리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활동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온누리 올려퍼지는 사랑나눔 운동 활활

영덕군,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 울진군, 김치반찬 지원 총매진

경북도내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운동이 활발하다.

다함께 더불어사는 공존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덕군 나눔봉사활동

영덕군 병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명이 관내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지난 21일 병곡면 노인복지회관에서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이 후원한 이번 사업은 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의 농수산물을 재료로 조리한 열무 물김치, 고등어찜, 오징어젓갈 등의 반찬을 홀몸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50가구에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김영란 민간위원장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여름철 대중적으로 선호하고 균형 있는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는 반찬으로



병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나눔 사업에 쓰일 반찬을 만들고 있다.

구성하려 했다"고 전했다.

남희동(병곡면장) 공공위원장은 "지역 내 복지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을 연계하고 푸드뱅크 물품 전달과 특화사업으로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밝혔다.

울진군 6월 사랑의반찬 나눔

울진군 매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홀몸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6월 마음담은 김치반찬 지원사업'을 했다.

한울원자력본부의 예산 지원으로 매월 시행하고 있는 김치반찬사업은 매화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정희)에서 조리한 반찬을 지역사회보장협의



울진군 매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6월 마음담은 김치반찬 지원사업'을 시행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체 소속단체 회원들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사업이다.

이달은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소고기장조림, 찜닭, 오이부추무침, 어묵볶음 등 맛과 영양을 갖춘 반찬을 직접 조리하여 취약계층 46가구에 전달, 안부 확인도 병행했다.

이만호 매화면장은 "무더운 날씨에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한끼라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시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하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매화면 협의체는 지역의 복지 안전망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울진군, 깨끗 안전한 수돗물 공급...

상수관로 전문 유지관리 사업 24억 투입 우수율 85% 유지

울진군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군민에게 공급, 우수율을 향상하기 위해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상수관로 전문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 울진군 급수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전문 유지관리를 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구축된 18개 소블록의 유지관리, 실시간 유량 감시, 체계적인 블록 시스템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우수율을 85% 이상으로 유지한다.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이 가능해져 수질, 수

압, 누수 등의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한 신속한 광량 정보로 이 중 굴착을 예방,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혼탁수 및 총수질량 발생 우려 지역에 선제적으로 관내시정 조사를 하고, 문제 원인을 파악해 관세척과 정체수 구간에 대한 주기적인 퇴수를 하는 등 선제적 수질 관리를 수행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수질 확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며, 시설물 관리와 점검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획 단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군민들에게보다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청송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4 1기분 자동차세 12억1400만원 부과...

청송군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2억1400만원(지방교육세 30% 포함), 1만 2343대를 부과했다.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텀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금년도분의 자동차세가 6월에 한꺼번에 고지된다.

납부 기간은 새달 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윤병문 기자

국힘 포항 남·울릉 당협 중앙위원회 발대식

이상휘 의원, "지역 지원 통한 삶의 질 개선한 입법 약속"

국민의힘 포항 남·울릉군 당협위원장 이상휘(국민의힘 의원)는 지난 22일 중앙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당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

포항시 남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발대식 및 위원장단 취임식에는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과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낮은 자세로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중앙위원회는 이상휘 의원의 공약사항을 충실한 이행을 위해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참여에 솔선수범한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수 야당인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방송통신법 개악에 온몸을 던져 반드시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특별법과 관련, "그동안 피해를 감내하고 희생해 왔던 지역주



민들에게 보상·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노후 산업의 유지보수와 지역주민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중호 선임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가대야당의 횡포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중국을 등에 업어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발전을 염원하는 중앙위원회 회원 모두가 주축이 되어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에 전력을 다하자"라고 촉구했다.

행사에서 고문으로는 김중기, 정영성, 이대호, 이석원, 부위원장으로는 김종수, 박순욱, 최숙자, 김태진, 김창희 위원이 선임됐다. 정윤환 기자

청도군, '찾아가는 행복병원' 큰 호응

청도군은 매진면 두곡리 경로당에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항의료원과 연계,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홀몸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무료 이동검진 서비스를 제공,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경북도 자체 사업이다.

현장에서는 초음파, X-선촬영, 혈액검사 등을 했다.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봉화농림지 동시 발생
병해충 협업방제 실시

봉화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돌발 병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영주시, 영주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치유원과 함께 농림지 동시 발생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업방제를 실시했다.

협업방제는 봉화군 봉성면 일대와 영주시 이산면, 봉현면 일대를 대상으로 총 80ha의 면적을 방제 완료했으며, 갈색날개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등 산림과 농경지에 큰 피해를 주는 주요 돌발해충을 저독성 농약을 활용해 지상 방제 작업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업 방제에 참여한 50여 명의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단원들은 작업에 앞서 철저한 사전 안전 교육을 받았으며, 방제복, 방진마스크, 안전모 등 필요한 안전 장비를 완벽히 갖춰 안전사고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방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김재원 산림소독자원과장은 "이번 협업 방제를 통해 지역 농민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지속적인 병해충 관리와 농민 보호에 힘쓸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상기 기자

영천시, 1인 미디어 스튜디오
'별★별아지트' 오픈데이 개최

영천시는 26일 1인 미디어 스튜디오 '별★별아지트'에서 오픈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현 부시장을 비롯한 교육생 40여 명, 시·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생들의 오리엔테이션도 함께 진행했다.

영천시는 2020년 경북테크노파크 그린기업지원센터에 1인 미디어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2023년도까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문교육을 무료로 진행해왔다.

약 430여 명의 교육 수료생과 530여 명의 체험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토대로 올해는 더욱 더 강화된 1대1 멘토링 시스템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은 7월부터 시작되어 청년·기업반(기본, 심화과정), 전문 크리에이티브반, 지역 크리에이티브반 등 세분화된 수업을 제공한다. 또한, 매번 인기가 많았던 찾아가는 미디어 스쿨, 미디어 체험반 등 체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수도권에 편중된 1인 크리에이터 미디어 교육을 영천에서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1인 미디어 교육을 통해 지역 홍보 및 기업 마케팅 등 다양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최은하 기자

4년 연속 귀농인 유치 전국 1위 의성·애사내기 행복충전소 운영

귀농인 안정적인 정착에 적극적 노력

의성군의 귀농인 유치는 전국에서 최고를 유지해 귀농인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있다.

군은 2023년에도 귀농인 유치 실적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2020~2023) 최다 귀농인을 유치한 쾌거를 이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성군은 올해 총 202명의 귀농인을

맞이하며 전국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의 213명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3년 귀농가구는 2022가구로 전년(213가구)보다 11가구(△5.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귀농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증명했다.

군의 귀농인 유치는 전국에서도 특히 두드러진다. 2023년 귀농인 유치 상위 5개 지역 중 경상북도가 3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의

성군이 가장 많은 귀농인을 유치했다.

의성군은 매년 귀농인들에게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며,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다.

의성군의 귀농인 유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의성군은 비옥한 화산 토질,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로 다양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자랑한다.

대구청년과 경북기업의 만남 '영천일자리 수요데이' 운영

고용서비스기관 공동 개최, 일자리 매칭 성과 높아

영천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및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베트남, 대만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남아 무역사절단은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 2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각각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비롯한 영천시 관계자, 영천시의회 의원, 참가기업 대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의 무역사절단은 24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하노이무역관에서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 시장 동향 설명회 및 영천시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25일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문해 영천시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며, 베트남 K-MARKET

본사를 방문해 영천시 농·특산물 베트남 수출 확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제품의 홍보를 위해 K-MARKET 골든점에서 상품 판촉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26일에는 베트남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바이어들과 영천시 중소기업과의 밀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베트남 중소기업협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 및 판로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하노이)에 방문해 양 기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28일에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무역사절단은 경쟁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다"라며 "기업별 일대일 맞춤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우리 지역기업의 우수제품을 널리 알리고 수출에도 성공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영주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훈련 실시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 및 특이민원 현장 대응역량 강화 도모

영주시가 폭언과 폭행 등의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나섰다.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영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추진한 '민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은 영주시청 민원실과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다.

훈련은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자 민원인의 폭언·폭행 발생 가

상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 담당 직원들이 직접참여해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제지 △녹음·촬영 △비상벨을 이용한 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정원경찰과 연계하여 민원인 제압 △경찰 일계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CCTV·비상벨 위치 파악 및 작동 여부 점검, 비상벨 작동 시 경찰의 신속 출동 협조체계 확인, 민원처리담당자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 보호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이뤄졌다.

조남 새마을봉사과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체



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직원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반기 1회씩 진행되는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훈련은 지난 2022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대 시행 중이다.

전상기 기자

의성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최훈식 의장, 지무진 부의장

의성군의회는 지난 24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9대 의성군의회 하반기 의장에 최훈식 의원(사진), 부의장에 지무진 의원(사진)을 선출했다.

각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오호열 의원 △총무위원회에 이경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에 박화자 의원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선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 김현찬 의원 △통합산림공화국발전지원특별위원회장에 김원석 의원을 선출하며 하반기 위원 구성을 마쳤다.

제9대 하반기 의성군의회는 7월 1일부터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해 남은 2년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최훈식 의장 당선인은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층 더 발전하는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주군,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토크콘서트 개최

성주군은 지난 25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님과 함께하는 청렴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청렴토크콘서트는 조직문화에 대한 세대별 인식차이를 공유하고 조직 내 갑질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

사는 기관장과 직원이 청렴한 조직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청렴토크쇼, 공연을 통해 청렴 메시지를 전달하는 청렴연극, 청렴샌드아트 순으로 진행됐다. 청렴토크쇼는 조직 내 갑질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생각을 전자투표를 통해 실시간으로 취합했다.

도재훈 기자

일자리수요데이
대구Job-Go

구직자의 일자리고민을 함께
기업의 채용고민을 함께

대경
구북
청기
년업

일 시: 2024.06.26(수) 13:30~
장 소: 대구고용복지+센터 5층 대회의실
면접기업: 경북지역 우수기업(11개소, 홈페이지 참조)
참여방법: 워크넷 입사지원을 통해 면접 예약

대구고용복지+센터
영천시취업지원센터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봉화군, 여름철 낚벌 응에 집중방제 기간 운영

봉화군은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한국양봉협회 봉화군지부와 합동으로 '2024년 여름철 낚벌 응에 집중방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방제 기간에는 낚벌 응에 번식이 활발한 여름철 적기 방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응에 방제법, 약품 선택 등 홍보·지도용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홍보·지도사항은 △양봉용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성분·제품 사용 여부 △제품명 기준이 아닌 성분 기준으로 응에 방제제를 순환사용 △약품 선택 시 응에에 저항성이 있다고 알려진 성분(플루발리네이트) 제외 △질병 발생 시 신고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낚벌 질병 신고센터 안내 및 조기 신고 독려 등이다.

응에는 진드기류 기생충으로 꽃이나 낚벌끼리 접촉에 의해 감염되며, 낚벌 유충의 성장을 저해시키고 전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다.

양봉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해충으로 6·7월에 활동이 활발하고 개체 수가 1주일 만에 6배 가량 증가할 수 있는 생체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군에서는 금년 3월 초에 4,600만 원의 예산으로 낚벌 사육농가 219호를 대상으로 응에 구충 약품을 포함한 방제약품과 면역증강제를 무상 공급한 바 있다.

전상기 기자



최훈식 의장

지무진 부의장

또한, "동료 의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군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무진 부의장 당선인은 "동료 의원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성군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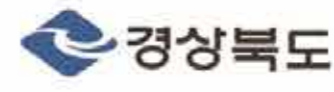
고령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파쇄지원 작업 시행

고령군은 지난 25일 덕곡면 후암리 산림인접지에 위치한 최귀곤씨 농장의 복숭아 및 참죽나무 파쇄지원 작업을 시작으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농작업 취약계층 및 산림인접지 농지

의 영농부산물을 불태우지 않고 파쇄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처리하여 퇴비 등으로 활용하고,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 등으로 자원순환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후계농업경영인고령군연합회(대표 이덕봉) 회원들이 앞장서서 참여한다.

배영백 기자



2025 APEC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최적지입니다

지금 경주는 APEC 중
우리가 함께 한 경주
세계로 향하는 경주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GYEONGJU

APEC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y Cooperation)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력을 위한 국제회의의 기구입니다.

21개국 정상 및 대표단, 기업인 등 6,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